

# 특 집

## 김정일시대의 남북 관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 • 지만원

남북 경협 전망과 민간 기업의 역할 • 조용준

사회 ·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색과 남북 관계 • 윤덕희

#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

지만원 / 군사평론가

## 평화 통일은 없다

**O** 리 마음 속에 있는 통일은 남북한이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정치적 통일'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통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평화와 통일이 따로 있을 뿐이다. 평화와 통일은 한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다. 평화를 잡을 것인가 또는 통일을 잡을 것인가. 우리는 양자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통일을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통일을 외쳐왔다. 그만큼 노력했으면 지금쯤 우리는 통일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야 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통일은 커녕 긴장만 고조돼 있다. 50년간 쌓아온 공이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통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북한에서 높으면 남한이 긴장했고, 남한에서 높으면 북한이 긴장해왔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긴장만 더 고조돼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이 평화를 깨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물 속의 그림자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가만 두어야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통일의 파라독스'다.

앞으로 100년간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남북한은 영원히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비 경쟁을 통해 민족 공멸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온 통일은 정서적으로는 민족의 염원이라는 말로 표현돼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북한 기독교 세력간의 '먹고 먹히는 게임'인 것이다. 만일 남한이 북한에 의해 통일돼보라. 각자는 자기의 재산과 가족의 운명을 염려하게 될 것이다. 강제적 통치에 시달릴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악몽이다. 이는 북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것이 긴장과 군비 증강의 원천이다. 따라서 통일을 곧바로 얻어내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다.

과연 평화적 통일은 가능한 것인가? 첫째, '흡수 통일' 둘째, '신사협정에 의한 평화 통일'을 생각해보자. 많은 이들이 흡수 통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에서 대량 봉기와 대량 난민 사태가 발생하고, 무정부 사태

가 발생하면 바로 그 시기가 흡수 통일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망상이다. 북한 사회에 혼란이 야기되면 110만의 대

군과 경찰이 계엄군으로 무장될 것이다. 휴전선에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아무리 무너져가는 북한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접수하려면 행정관들이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군이 3·8선을 넘어야 한다. 이는 북한 계엄군과의 전쟁이요 북침을 의미한다.

북한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어느 방향으로 형성될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북한이 남침을 해올까 하여 안절부절할 것인가 또는 3·8선을 넘어 북한을 접수하자고 할 것인가. 아마도 100%의 국민이 3·8선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한국군은 북한을 접수하려 하기는 커녕 북한군이 언제 쳐내려올지에 대해 전전긍긍하면서 초비상 상태에 돌입할 것이다. 한국군에 3·8선을 넘을 만한 능력과 담력도 없지만 주변국들도 한국군의 3·8선 월경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6·25전쟁도 바로 흡수 통일에 대한 착각에서 발발했다. 당시 남한 사회는 극도로 어지러웠다. 군이라 해야 소총과 몇개의 야포로 무장되었을 뿐이었고 대부분의 장군들은 미숙했고 그나마 부패해 있었다. 남한 사회 곳곳에 공산 세력이 뿌리깊이

많은 이들이 흡수 통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에서 대량 봉기와 대량 난민 사태가 발생하고, 무정부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그 시기가 흡수 통일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망상이다. 북한 사회에 혼란이 야기되면 110만의 대군과 경찰이 계엄군으로 무장될 것이다.

박혀 있었다. 김일성으로서는 3·8선만 넘으면 거저 남한을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3·8선을 넘은 것이다. 그 결과가 민족의 비극이었다. 우리는 왜 이 간단한 사실을 음미하려 하지 않고, 북침을 꿈꾸고 있는가.

경제가 어려우면, 정권은 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가난해서 나라가 망한다면 아프리카에는 남아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북한에 혼란이 야기되면 북한에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 질서를 잡을 것이다. 그 질서잡힌 북한을 남한 정권에 고스란히 갖다 바칠 위인은 없다. 따라서 흡수 통일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남북한 정치 집단간의 신사협정을 통해, 하나의 정권을 창출해내는 평화 통일은 가능할 것일까. 이는 1,000 년이 가도 불가능할 일로 보인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한 정권은 여당과 야당으로 분리되어 이진투구를 계속했다. 한술밥을 먹고 사는 여야간에도 단 한 번의 신사협정이 맺어진 일이 없었다.

그 간단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여야간의 협상으로 이뤄내지 못해, 점잖아야 할 국회의원과 대권 주자들까지도 새벽에 날치기라

흡수 통일의 가능성과 무력 통일의 가능성 가운데서 무력 통일의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첫째, 무력 통일을 당하기 싫으면, 우리도 흡수 통일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하며 둘째, 북한을 야금야금 개방시켜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컨닝 정신을 버려야 하며 셋째, 군비 증강에 의해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망상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정치적 통일은 상상할 수 없다.

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은 우리의 낮은 정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수준을 가지고 반세기 동안 이질 사회 속에서 살아온 북한 정치 집단에게 신뢰를 줄 수는 없다. 신뢰받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두 개의 이질적 정치 집단이 마음을 합쳐 한 사람의 민족 대통령을 뽑아내고, 정부 조직과 법규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일을 해낸다는 것은 사하라사막에 비가 내리는 이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신사협정에 의한 통일은 흡수 통일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통일은 흡수 통일이든 신사협정에 의한 평화 통일이든 모두 불가능해보인다. 남한이 이렇게 비전없는 일을 가지고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통일을 외치는 한, 북한 역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할 것이다. 흡수 통일의 가능성과 무력 통일의 가능성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질까. 무력 통일의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첫째, 무력 통일을 당하기 싫으면, 우리도 흡수 통일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하며 둘째, 북한을 야금야금 개방시켜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컨닝 정신을 버려야 하며 셋째, 군비 증강에 의해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망상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정치적 통일은 상상할 수 없다. 불가능

한 통일, 설사 가능하다 해도 긴장과 전쟁을 잉태하는 '정치적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민족 에너지를 소모할 것인가.

### 평화를 얻으려면 통일을 버려라

이 세상에는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고용 안정도 버려야 얻을 수 있고, 통일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용 안정은 듣기에는 훌륭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파괴한다. 똑같은 상품을 영국은 50 명으로 제조하고, 한국은 100 명으로 제조한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과감한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우리도 50 명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리엔지니어링 노력은 감원을 의미하고, 감원은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영국 제품은 50 달러에, 한국 제품은 100 달러에 제조될 수밖에 없다. 이 두 제품을 국제 시장에 내놓으면 그들은 영국 제품을 살 것이다. 한국 시장에 내놓아도 한국인들까지 영국 제품을 살 것이다. 결국 국제 경쟁력을 상실

한 한국 기업은 망하게 된다. 기업이 망하면 고용 안정도 없지 않은가. 결국 고용 안정과 국제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가운데 한국은 고용 안정이라는 토끼를 먼저

잡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처지에 처했던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고용 안정이라는 토끼를 버리고 국제 경쟁력이라는 토끼를 택했다.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였다. 국영 기업체를 민영화시켜 대량 해고를 양산했다. 그 결과 달러가 들어오게 되고, 실업은 스스로 고용을 창출했다. 여기에 더해 영국 정부가 나서서 외국 업체를 유치했다. 땅을 거저 빌려주고 창업 행정을 정부가 대신 해주었다. 내일의 고용 안정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만은 고용 안정을 과감히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영국은 국제 경쟁력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

통일도 이와 똑같다. 내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만큼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 공존을 시스템화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 감시 하의 상호 감군이다.

내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만큼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 공존을 시스템화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 감시 하의 상호 감군이다.

캐나다와 미국을 보자.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한집 식구들처럼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는다. 유럽을 보자. 수많은 국경선이 있고 수많은 정부가 있지만 유럽 대륙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국경선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것이 유럽의 통일이다. 남북한도 이들처럼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회적 통일'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사회적 통일을 이루려면 정치적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은 정치 집단간의 싸움만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를 '정치적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회적 통일'은 없다. 이 사회적 통일이 바로 '평화 공존'인 것이다.

자유롭고 대규모적인 교류는 민족 동질성 구축과 통일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휴전선을 군사적 긴장 상태로 유지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3·8선을 넘은 동포들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상황 하에는 민족간의 자유로운 '대량 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서로를 불신하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다. 적대 관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서로를 불신하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다. 적대 관계를 형제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기의 군사력을 '신뢰의 군사력'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신뢰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이다.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군사력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10만 감군은 그의 의도가 어떻든간에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었다.

계를 형제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기의 군사력을 '신뢰의 군사력'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신뢰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이다.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군사력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10만 감군은 그의 의도가 어떻든간에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었다.

통일의 끝은 전쟁이지만 평화 공존의 끝은 통일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평화 공존은 통일의 중간 과정이다. 평화공존시스템 하에서 같은 민족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통일이 찾아올 것이다. 그 정치적 통일은 세월과 하늘이 가져다주는 것이지, 결코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과도기적 평화 공존은 신뢰마저 구축하지 못한다. 평화 공존이라는 과도기가 지나면 양측은 또 다시 상대방의 통일 의도에 대해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의심하면 긴장과 군비 경쟁이 시작된다.

따라서 남북한은 영원히 갈라설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 몹을 침범하지 않

겠다는 뜻이 전달된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물론, 이제까지 제안돼온 모든 '통일 방안'들은 통일을 '인위적인 계획'에 의해 이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

기 때문에, 통일을 이뤄낼 수 없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자. 첫단계가 교류 협력 단계다. 교류 협력은 개방을 의미한다. 개방은 김정일체제에 독약이다. 결국 정부 통일 방안의 제1단계는 김정일에게 독약을 먹이려는 단계다. 북한이 어찌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제3단계는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1국가로의 통일 단계다. 이는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를 어찌 수용하겠는가. 결국, 정부의 통일 방안은 화해에 의한 통일 방안이 아니라 북한 자극용에 불과하다.

### 지금도 상호 군축을 제안하기 위한 최적기다

온세계가 군축을 단행하고 치열한 경제 전쟁에 돌입되어 있는 지금, 남북한만 서로를 통일하겠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고 200만의 정예 인력을 국방에 허비한다면 민족이 공멸한다. 남한은 이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이 좌우한다. 운명을 미국이 이끌어가는 대로 방치한다면 남북한은 '긴장있는 투-코리아'의 운명을 맞

는다. 원-코리아를 이룩할 수 있는 민족적 리더는 아직 없다.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길도 없다. 어차피 투-코리아의 운명이라면 우리는 '긴장없는 투-코리아'를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

에게 있다. 사실상 '긴장없는 투-코리아'가 바로 통일이 아닌가. 북한의 식량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국제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 두 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있는 북한이 110만 대군을 유지하고 GNP의 25% 이상을 군사비에 투입한다는 것은 낡은 스타다. 따라서 북한은 감군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고 북한이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군사력에 의한 통일 정책을 쉽사리 버릴 수 없다는 두 개의 사실때문에, 북한 스스로 군축을 단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여기에 남한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세계를 향해 '긴장없는 투-코리아' 즉, 형제처럼 평화롭게 지내는 두 개의 이웃 국가로 갈라설 것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UN 감시 하에 10만으로 상호 감군할 것, 둘째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해야 할 것이다.

남한을 보자. 남한에도 15 개의 지방정부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통일 개념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고 북한이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군사력에 의한 통일 정책을 쉽사리 버릴 수 없다는 두 개의 사실때문에, 북한 스스로 군축을 단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여기에 남한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세계를 향해 '긴장없는 투-코리아' 즉, 형제처럼 평화롭게 지내는 두 개의 이웃 국가로 갈라설 것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UN 감시 하에 10만으로 상호 감군할 것, 둘째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해야 할 것이다.

고 있다. 첫째, 제주도에 제주도를 가장 잘 아는 제주도 주민이 지방정부의 장이 되듯이, 설사 통일이 된다 해도 평양에는 평양을 가장 잘 아는 평양인이 평양 정부를 경영해야 한다. 어차피 있어야 할 평양 정부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통합할 필요는 없다. 둘째, 만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하려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두 지역 주민들간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싸움이 일 것이다. 하물며 평양 정부와 서울 정부가 쉽게 통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평양 정부를 흡수할 수도 없지만 설사 평양 정부를 흡수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계산해야 한다. 서울 시민이 제주도를 마음대로 다녀오듯이 남한 주민이 평양을 마음대로 다녀올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줄 수 있는 열매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남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면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전환돼야만 한다. 그래야 국경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이 간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만 대량 교

많은 이들은 통일이 돼도 주변국에 어울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이 이러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에 통일은 커녕 평화도 없다. 더러는 군축이 이뤄지려면 신뢰부터 구축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다. 군축이 이뤄져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서로를 안심시킬 수 있는 만큼의 작은 군사력만을 가져야 한다.

류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한은 남한을 흡수하려 하고, 남한은 북한을 흡수하려 한다면, 남북한은 영원히 긴장하고 영원히 군비를 증강하게 될 것이다. 냉전시대에 형성됐던 막연한 통일, 한반도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것만이 통일이라고 생각했던 고정 관념이 따지고 보면 가장 큰 통일의 장애 요소인 것이다.

남북한은 얼마의 군사력을 가져야 하나. 많은 이들은 통일이 돼도 주변국에 어울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첫째, 극단적으로 남북한에 군사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주변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우리를 무력으로 정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흡수하려 하면 다른 주변국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은 무력에 의한 정복보다는 경제력에 의한 정복이 무서운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이러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에 통일은 커녕 평화도 없다. 남북한이 계속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면, 남북한간에 신뢰는 구축될 수 없을 것이다. 더러는 군축이 이뤄지려면

신뢰부터 구축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다. 군축이 이뤄져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권총을 차고 있는 두 사람간에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는가. 총을 풀

어놓아야 안심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서로를 안심시킬 수 있는 만큼의 작은 군사력만을 가져야 한다. 군사력을 줄이기가 어렵지 키우기는 쉽다. 통일 이후에 군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키워도 된다. 통일 이후의 군사력 문제는 10 km 앞의 토끼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군사력 문제는 바로 눈 앞에 있는 토끼다. 눈 앞에 있는 토끼부터 잡으려 않고 10 km 앞에 있는 토끼와 동시에 잡으려 한다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치게 된다.

우리는 북한과 세계를 향해 10만 감군과 평화 공존 방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박수를 받을 것이다. 1988년 12월 7일 고르바초프가 UN에서 '일방적 군축'을 선언했다. 그로 인해 고르바초프는 세계를 바꾼 위인으로 추앙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인습과 통념에서 해방된 세계적인 신사고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다. 그 위인은 누가 될 것인가. 오직 한 사람, 남북한의 냉전을 깨는 사람일 것이다. 통일에 매달리는 지도자는 영원히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就**